국립중앙박물관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의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제언*

이 기 성**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일제강점기 자료의 공개와 활용 그리고 의미

Ⅲ. 향후 자료 공개와 활용에 대한 제언
1. 조선총독부박물관 사업의 통시적이고 망라적인 정리
2.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공개 방식 - 해제와 번역
3. 자료 활용 분야의 확장 - 국립문화재연구원과의 협업
4. 일제강점기 고적 사업 연구 중심으로서의 국립중앙박물관 - 국내외 기관과의 협업

Ⅳ. 마치며

* 본 논문은 한국고고학회-국립중앙박물관 공동주관 학술대회『국립박물관 소장 일제강점기 자료의 공개와 활용(2022. 9. 30.)』에서의 발표문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융합고고학과 교수

접수일: 2022. 10. 1. 심사완료일: 2022. 10. 31. 게재확정일: 2022. 10. 31.

국문초록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랜 기간의 지난한 노력으로 방대한 양의 일제강점기 자료를 정리, 공개하고 그와 관련되어 실시된 다양한 사업은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업이 지금까지는 자료의 공개에 집중되었다면 앞으로는 공개된 자료에 대해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과 일제강점기 또는 근대기 고적 사업 연구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박물관 밖에서 바라보는 국립중앙박물관 일제강점기 자료의 공개, 활용 현황을 정리하고 이후의 사업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언하였다.

○ 문서와 유리 건판의 통시적이고 망라적인 자료 정리를 통한 일제강점기 고적 사업의 전체상 파악
○ 북한 지역 고적조사 사업의 정리
○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의 해제, 번역 및 참고 자료 제공
○ 국립문화재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한 '고적 및 고건축 수리 복원' 분야의 정리 및 연구
○ 국외 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근대기 고적 사업 연구 중심을 지향

일제강점기 고적 사업에 대한 연구는 비단 고고학, 미술사, 건축사의 학사적 연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근대사, 문화재 환수 등 다양한 방면에 주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이 그러한 연구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국립중앙박물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유리건판

Ⅰ. 들어가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일제강점기 자료는 조선총독부박물관이 생산한 자료로, 일반적인 '박물관 소장 자료'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제강점기 자료가 우리의 손에 의해서 생산된 것도 아니며 또한 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여러 고적 사업들이 식민지 조선의 역사를 밝히기 위한 학문적인 목적이었다고 말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古蹟調査報告』 등 당시 공식적으로 발간된 보고서와는 달리 공문서, 유리건판 등은 일제강점기 고적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조선총독부 박물관은 1915년 개관 이래 직제 변천에 따라 담당 부서가 변하였으며 그에 따라 업무 역시 조금씩 변화가 있었는데(김도형 2001; 오영찬 2019), 1940년대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업무는 1) 박물관 경영, 2) 매장문화재의 처리, 3) 고적 및 고건축의 수리보존, 4)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지정 등(有光敎一 2007: 34) 이었다. 해방 이후 대대적인 소각으로 인해 파편적이고 결락이 극심한 조선총독부 공문서(이경용 2021)에 비해 '소각해야 될 서류가 한 장도 없는(有光敎一 2007: 51)'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서류는 방대한 양이 국립박물관으로 이어졌으며, 이것이 현재의 국립박물관 소장 일제강점기 자료이다.

1990년대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보관 고문서목록(1996)』, 『광복이전 박물관 자료목록집(1997)』, 『광복이전 유적유물 미공개도면 Ⅰ~Ⅵ(1998~201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원판 목록집 Ⅰ~Ⅴ(1997~2001)』 등의 목록집이 발간되기는 하였지만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등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총독부 문서들이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부터 일반에게 공개되기 시작한 것에 비해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자료는 2011년부터 온라인으로 공개되어(권혁산 2021), 다른 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었다는 점은 아쉽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22년 현재까지의 짧은 기간동안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정리하여 온라인에 공개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학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높이 평가된다.

본고에서는 박물관 밖에서 바라보는 국립중앙박물관 일제강점기 자료의 공개, 활용 현황을 정리하고 이후의 사업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일제강점기 자료의 공개와 활용 그리고 의미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자료는 「일제강점기 자료

원문」, 「조사보고서」, 「문서자료집」, 「유리건판자료집」이며, 이 중 '일제강점기 자료 원문'에서 공개하고 있는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와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은 조선총독부박물관 또는 학무국의 사업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이다. 1997년에 발간된 『광복이전 박물관 자료 목록집(국립중앙박물관 1997)』에는 '기부', '진열', '구입', '발견', '지정', '고적조사', '보존', '국유림', '도면', '지도', '신문보도', '기타'의 12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것은 '신문보도'가 빠진 11개 항목으로 큰 차이는 없으며 이는 조선총독부박물관의 기능과 문서의 내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총독부 유리건판]의 경우, 사진의 내용에 따라 '고고', '미술', '건축', '문자자료', '인류・민속', '기타'로, 그리고 지역별 분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 8월 현재 총 41집의 "일제강점기 자료조사 보고", 12집의 "국립박물관 소장 유리건판"이 발간되었다. "일제강점기 자료조사 보고"는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특정 유적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공문서, 유리건판, 유물 등을 정리하여 '발굴보고서'의 형식으로 출판한 것이며 최근에는 금관총과 서봉총 등 일제강점기 조사 고분의 재발굴 보고서도 발간되었다. "국립박물관 소장 유리건판"은 특정 시대 또는 지역의 일제강점기 조사 성과를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촬영된 유리 건판을 집성한 것으로, "일제강점기 자료조사 보고"와 "국립박물관 소장 유리건판"이 발간되는 때에 맞추어 특별전, 학술대회 등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그 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국립박물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일제강점기 자료를 활용한 사례도 있다. 세계유산 백제역사지구에 속한 여러 유적들의 일제강점기 조사 자료를 집성・정리한 『백제역사유적지구 일제강점기 기록모음집(백제세계유산센터 2018)』이나 가야의 일제강점기 조사 자료를 집성한 『가야자료 총서 2, 가야 일제강점기 자료편(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8)』 등을 들 수 있다. 외부의 기관에서 국립박물관 소장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처럼 국립기관의 사례 외에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활용 결과는 개인 연구자들의 논문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2022년 8월 현재 학술연구정보서비스[1]에서 확인되는 조선총독부박물관 관련 논문은 일반 연구 논문 133편, 학위논문 78편, 총 211편으로 대부분이 2010년대 이후에 발표된 것들이다. 특히 2010년대 이후 매년 4~5편 정도의 학위논문이 제출되었는데 이것은 조선총독부박물관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1) www.riss.kr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연구 성과들에 전통적인 고고학과 미술사 분야 외에도 고건축, 박물관 관련 논문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수의 논문이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고적(古蹟)'과 관련된 여러 학문의 '초기 모습'을 밝히는 것 외에 당시 실시되었던 고적 사업의 제국주의 성격, 식민지성을 강조한 내용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아직은 국립박물관 중심의 자료 활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타 기관, 개인에 의한 자료 활용 역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의 의미는 무엇일까. 필자는 크게 1) 일제강점기 고적 관련 사업의 재검토, 2) 일제강점기 고적 사업의 전체상 파악, 3) 역사 연구 자료의 제공으로 구분해보고자 한다. 1)의 경우 지금까지 국립박물관에서 발간한 "일제강점기 자료조사 보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일제강점기 조사 자료의 공개를 통해 잘못된 고고학적 지식의 정정, 정확한 기초 자료의 제공 등으로 학술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2)는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고적 조사뿐 아니라 고건축의 수리·보존, 인류학적 조사 등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실시한 고적 사업의 전체상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 정리 사업으로서의 의미, 3)은 '고적' 또는 '박물관'과 관련된 근대사 연구의 기초 자료 제공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의미가 모두 충족되기에는 아직 여러 한계와 장벽이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자료의 양이 매우 방대하다는 점 그리고 근대 일본어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 사업이 아직까지는 고고학과 미술사에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아래에서는 필자가 생각하는 일제강점기 자료의 공개와 활용의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향후 자료 공개와 활용에 대한 제언

1. 조선총독부박물관 사업의 통시적이고 망라적인 정리

현재 [문서]와 [유리건판]은 내용과 성격에 따라 분류,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혹은 필요한 '일제강점기 자료의 정리된 모습'은 [개별 고적 사업과 관련된 문서 – 사진, 도면 및 일지 등 사업과 관련되어 생산된 자료 – 수습 유물 – 예산, 비용과 관련된 서류 – 복명서 – 정식 발간 보고서] 등 하나의 사업에 대한 일련의 완결된

자료일 것이다. 물론 매장문화재 조사, 고건축 수리, 박물관 진열 등 사업의 성격에 따라 포함되는 문서 및 자료는 상이하겠지만, 사업의 시작부터 완결까지의 전체상을 파악할 수 있는 일괄 자료가 통시적으로 정리된다면 20세기 초반부터 1945년 조선총독부박물관 폐쇄까지 일제강점기 고적 사업의 전체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것 중의 하나가 고적과 관련되어 어떠한 사업들이 이루어졌는지의 전체상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이기성 2010).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의 일환으로 발간되는 "일제강점기 자료조사 보고"에서 다루고 있는 유적들은 일제강점기 조사 결과가 정식 보고서로 발간되지 않았거나 또는 조사 내용의 일부만이 『古蹟調査報告』로 발간되었지만 유적의 중요성 때문에 조사 참여자들의 논문 등에서 조사 내용이 소개되는 등 해방 이후에도 학계에 잘 알려져 있던 유적들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학술적 중요성이 낮거나 혹은 여러 상황으로 인해 조사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유적들 혹은 고적 사업의 수는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의 내용은 오로지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를 통해서만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40여 년 가까운 기간 동안 실시된 고적 사업의 방대한 자료를 대상으로 각 사업의 전체 흐름과 일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은 매우 오랜 기간에 다대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그렇기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며 자료 소장 기관인 국립박물관에서 장기간의 계획 아래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자료를 망라하여 각 연도별로 어떠한 고적 사업이 이루어졌고 어떠한 자료들이 그 사업을 통해서 생산되었는지를 『연감』과 같은 형태로 정리하다면 일제강점기 고적 사업의 전체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자료의 망라적인 정리의 필요성 중의 하나는 '북한 지역 문화재' 및 '북한 고고학'에 대한 기초 자료의 제공이다. 북한의 문화재 및 고고학 조사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단편적인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이며, 그러나 향후 통일을 대비해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고고학계에서는 여러 학술대회 등을 통해 북한 고고학의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중부고고학회 2015; 한국고고학회 2016, 2017, 2018; 국립문화재연구소・한국고고학회 2019).

일제강점기 북한 지역의 고적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모두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리 작업은 오로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만 가능하다. 지금까지 발간된 "일제강점기 자료조사 보고"와 "국립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중 북한 지역의 고적 조사 사업과 관련된 것은 『봉산 양동리 전실묘(제2집, 2001)』, 『평양 정백리 8・13호분(제3집, 2002)』, 『평양 석암리 9호분(제30집, 2018)』, 『평양 오야리 18~21・25호분-유구편(제41집, 2021)』, 『북한

의 불교미술(제2집, 2014)』, 『고구려의 도성(제3집, 2014)』, 『유리건판으로 보는 개성(제11집, 2019)』, 『유리건판으로 보는 발해 유적(제12집, 2019)』 등으로 매우 적은 수에 불과하다. 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북한의 유적보다 현재의 모습과 비교가 가능한 남한 지역의 유적에 대한 자료 정리가 우선시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지역의 어떠한 유적에 대해 고적 사업이 실시되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유리 건판의 지역별 건수를 본다면 북한 지역 역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 북한 지역 문화재 조사의 기초자료로서 조선총독부 박물관 문서 및 유리건판의 자료 정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공개 방식 - 해제와 번역

1) 문서 해제

당연하지만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는 모두 일본어, 더군다나 근대 일본어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손쉽게 해독할 수 있는 연구자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문서의 양이 매우 방대하기에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해도 문서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홈페이지에서는「권」-「문건」-「문서」중, 문서철인「권」에 대한 3~4줄 정도의 짧은 해제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모든 문서의 해제를 제공하기는 당연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권」에 대한 간단한 해제만으로는 문서의 전체상을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다 세부적인 해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은 조선총독부 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국가기록원은「조선총독부 기록물[3]」사이트에서 문서를 공개하고 있는데, 기록물철과 주요 기록물건에 대한 해제를 제공하고 있다.「조선총독부 기록물」사이트에서 '고적'으로 검색을 하면, 총 8건의 기록물철, 31건의 기록물건이 검색된다. 이 중 8건의 기록물철에 대해서는 모두 해제가 제공되며, 31

2) 현재「조선총독부 유리건판」에서 제공되는 있는 지역별 유리 건판의 수는 강원도 1,411매, 경기도 1,555매, 경상남도 1,746매, 경상북도 6,622매, 광주광역시 17매, 대구광역시 570매, 대전광역시 10매, 부산광역시 198매, 서울특별시 1,455매, 울산광역시 84매, 인천광역시 208매, 전라남도 1,993매, 전라북도 317매, 제주도 162매, 충청남도 1,545매, 충청북도 611매, 평안남도 5,487매, 평안북도 527매, 함경남도 969매, 함경북도 972매, 황해도 1,163매 등 총 27,622매이며, 이 중 북한 지역의 유리 건판은 9,118매로 33%에 달한다.

3) https://theme.archives.go.kr/next/government/viewMain.do

건의 기록물건에 대해서는 일부의 기록물건만이 해제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이쇼 4년(1915)에 생산된 '사찰 관계 서류'의 문서철에 대해서 기록물철에 대한 간단한 해제를 제공하고 그 기록물철의 총 28건의 기록물 중 7건의 기록물에 대한 해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고적보존에 관한 공비청구서등 송부의 건' 문서에 대해서는 *'1912년 고적조사 때에 국보로 지정받은 철원군 북면 고관리古關里 소재 고탑古塔 석구石龜, 춘천 청평사淸平寺 소재 문수원文殊院 비문의 보존을 위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강원도장관과 조선총독부 지방국이 주고받은 공문을 모아놓은 것이다. 고적보존을 위한 목책木柵설치와 수리 때문에 토목국土木局도 관련이 있는데, 청평사 주지 변혜암邊惠菴의 요청에 따라 지급된 고적수선 보조비 때문에 이 기록물철에 합철된 듯하다. 1914년 9월 25일자의 강원도장관의 신청부터 시작하여 모두 3차례의 공문이 접수·발송된 1915년 2월 23일에서야 완결되었다'*라는 해제가 부가되어 있다(도 1). 모든 기록물건이 아닌 주요 기록물건에 대해서만 해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해제보기 기록물 건

이 기록물철은 내용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사찰령」과 「사찰령시행규칙」의 시행 이후 조선 불교계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통제방침과 방식을 볼 수 있는 <조선사찰각본사연합성규(朝鮮寺刹各本寺聯合成規)> 및 각 사찰의 사법 개정, 주지의 변경, 사유(寺有) 입목(立木)의 벌채 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 관계 서류이다. 또 하나는 1906년 제정된 「종교의 포교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1915년 8월 「포교규칙」을 새롭게 공포한 상황에서 신사(神社) 창립과 포교자 변경 등 일본 불교와 신도에 대한 인·허가 신청관계 서류가 포함되어 있다. 사찰의 사법변경이나 주지인가, 폐기허가 관련 서류들은 「사찰령」 시행 이후불교계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에 통제되어 가는 구체적인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사찰소재지명 변경취조회답>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조선총독부의 각 도의 사찰소재지명 변경사항을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 각 도는 군명·사찰명칭·소속본사명·구 소재지·개정 소재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보고문을 올리고 있다. 즉 「사찰령」과 「사찰령시행규칙」의 제정과 시행에 의해 인사와 재정을 장악한 구조적 통제와 함께 행정력을 동원한 구체적인 행정적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1915년 8월 「포교규칙」을 공포하여 불교통제정책을 확대정비하는 한편, 기독교 및 신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통제정책을 취하였다. 「포교규칙」의 핵심은 조선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 그 포교자들을 등록하게 하여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에 의하면 총독은 포교방법, 포교관리자의 권한 및 포교자 감독의 방법, 포교관리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4조) 또한 포교관리자는 소속 포교자 명부를 작성하여, 신도수 및 그 해 신도수 증감상황과 함께 매년 12월 31일자로 다음해 1월 31일까지 총독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제5조, 제12조)

주요기록물

주지 취직인가의 건

평양남도 법흥사(法興寺)의 지주 사임 요청에 따른 새로 선정된 주지의 인가요청 관련 서류이다. 여기에는 이력서와 개인카드가 첨부되어 있는데, 조선총독부가 이를 개인별 카드에 옮겨 적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포교관리자변경의 건, 신사(神社)사원규칙시행에 관한 건, 포교규칙에 관한 건, 신사창립에 관한 건

「포교규칙」 공포에 따른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이 변화된 상황에서 일본 신도와 불교, 대구카톨릭교회의 운영 및 규정과 관련한 기록이다. 각 도에는 신사대장, 사원대장, 신사유토지대장, 사원유토지대장, 신직명부(神職名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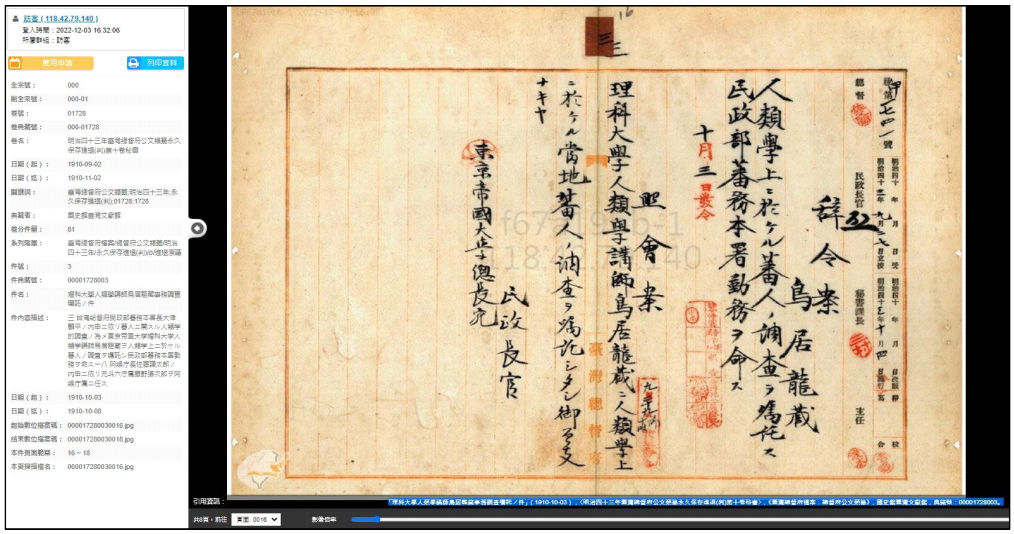
고적보존에 관한 공비청구서등 송부의 건

1912년 고적조사 때에 국보로 지정받은 철원군 북면 고관리(古關里) 소재 고탑(古塔) 석구(石龜), 춘천 청평사(淸平寺) 소재 문수원(文殊院) 비문의 보존을 위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강원도장관과 조선총독부 지방국이 주고받은 공문을 모아놓은 것이다. 고적보존을 위한 목책(木柵)설치와 수리 때문에 토목국(土木局)도 관련이 있는데, 청평사 주지 변혜암(邊惠菴)의 요청에 따라 지급된 고적수선 보조비 때문에 이 기록물철에 합철된 듯하다. 1914년 9월 25일자의 강원도장관의 신청부터 시작하여 모두 3차례의 공문이 접수·발송된 1915년 2월 23일에서야 완결되었다

도 1. 국가기록원「조선총독부 기록물」사이트의 문서 해제

또한 우리와 같은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만의 경우 「國史館臺灣文獻館」[4]에서 대만총독부 문서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 중 고적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개별 문서에 대한 해제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鳥居龍藏'으로 검색하면 관련 공문을 이미지로 볼 수 있고, 문서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도 2).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에 대해 어느 단계까지 해제를 제공할 것인지는 해제 작업의 효율성, 문서의 성격 및 내용 등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일률적으로 결정될 사항은 아닐 것이다. 해제 수준과 범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도 2. 대만 「國史館臺灣文獻館」의 대만 총독부 문서 검색 화면

2) 각종 자료의 번역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문서 또는 기록물의 해제가 아니라 원문 제공 및 번역 작업이 필요하다. 당연히 모든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와 관련 기록물을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며 불필요한 작업이지만,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사업의 기초 자료가 되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번역 작업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연구자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번역 작업이 필요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① 각 연도별 고적조사 사업의 결과물인 『古蹟調査報告』, 『古蹟調査特別報告』 등

4) https://onlinearchives.th.gov.tw

② 제1회~제36회까지의 '古蹟調査委員會' 회의 관련 자료 및 복명서
③ 고적 지정과 관련된 각 연도별 『古蹟及遺物登録台帳抄録』, 『朝鮮宝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要目』, 『朝鮮宝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一覧』 등
④ 조선총독부박물관 및 고적조사 전반에 관련된 다양한 법령

각 연도별 『古蹟調査報告』, 『古蹟調査特別報告』 는 지금도 일제강점기 고적조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이다. 또한 다른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들과는 달리 공식적으로 발간된 인쇄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의 손쉬운 접근을 위해서는 한글 번역본이 필요하며,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미 금관총 보고서에 대한 번역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1). 자료적인 가치로 본다면 『古蹟調査報告』 전체에 대한 번역 작업 후 일반에 공개될 필요가 있다.

일제강점기 전 기간을 통틀어 고적조사와 관련되어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 위원회는 잘 알려져 있는 '古蹟調査委員會(1916~1933)'와 '朝鮮總督府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會(1933~?)'가 있다. 이 두 위원회는 고적 조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의결하였던 기구로, '古蹟調査委員會'의 회의록은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고적조사」의 하부 메뉴 중 '고적조사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회의록에는 각 회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각 연도별 고적조사의 내용, 고적 및 유물 등록, 다음 연도의 고적조사 계획 등의 내용이 있어, 당시 어떠한 사업이 계획, 실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다만 '朝鮮總督府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會'의 회의록은 단편적인 자료만이 검색되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여하튼 이 두 기구의 회의록은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사업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계획되었으나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 않은 사업 또는 실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은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당시 고적 사업 담당자들이 출장 보고서인 '복명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복명서는 당시의 고적 사업과 관련된 가장 세부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출장 과정에서 중요한 유적 또는 유물이 발견되고 이후 본격적인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古蹟調査報告』로 출판되기도 하지만, 본격적인 조사 또는 건축물의 수리복원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한 두 번의 출장으로 끝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관련 문서와 복명서를 제외한다면 이러한 소규모 사업을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사업의 전체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전체에 대한 번역 작업 후 공개될 필요가 있다.

그 외 고적 지정과 관련된 각 연도별『古蹟及遺物登錄台帳抄錄』,『朝鮮宝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要目』,『朝鮮宝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一覽』등과 더불어 고적 사업과 관련된 여러 법령 등 역시 전체를 번역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기초 자료의 번역 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고적 사업에 관련된 연구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면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일제강점기 자료의 파편적이고 단편적인 이해가 아닌 전체상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3) 참고 자료 제공

현재「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홈페이지에서는〈참고자료〉로 '1.「복명서」조사 일람표, 2.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 3. 고적조사위원회 규정 古蹟調査委員會規程, 4. 1회~36회 고적조사위원회 의안, 5. 고적조사 인명 목록, 6. 서력・일본연호 대조표'의 6개 항목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1.「복명서」조사 일람표'에서는 복명서 문서철의 내용을 바탕으로 1916~1942년까지의 각 연도별 조사 지역과 조사 대상, 조사 담당자 등을 표로 정리한 내용으로, 개략적이지만 조사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4. 1회~36회 고적조사위원회 의안'은 고적조사위원회 문서철의 내용을 바탕으로 1916년의 제1회 고적조사위원회부터 1932년의 제36회 고적조사위원회까지의 의안 목차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의안 목차만을 제공하고 있어 실제 위원회의 논의 내용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2.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과 '3. 고적조사위원회 규정'은 각 규정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고, '5, 고적조사 인명 목록'은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에 관련된 35명의 인명을 일본어(한국 한자음), 한글 표기로 표시한 것이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총 6개 항목의 참고 자료 중, 1과 4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체 자료를 번역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관련 법령과 인명 목록이다.

조선총독부박물관과 고적조사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법령과 제도가 있다. 그 중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古蹟及遺物保存規則(1916)', '古蹟調査委員會規程(1916)' 그리고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祈念物保存令(1933)'과 '朝鮮總督府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會官制(1933)' 이지만 그 외에도 매우 다양한 법령과 제도가 있다. 매장문화재 조사와 관련되어서는 '朝鮮總督府警察總監部事務分掌規程(1910)', '埋藏物發見の届出(1913)' 등 일제강점기 초기부터 다양한 제도가 있었으며, 또한 일제강점기 건조물 보존 관련 법령 등 역시 매우 많은 수가 있

다(표 1). 이 중 잘 알려져 있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문에 한글 번역이 실려 있는데, 그 외의 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해서도 전문을 번역해서 참고 자료로 제공한다면 관련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고적조사 인명록에 관련된 것이다. 현재 홈페이지의 〈참고자료〉에서는 인명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각각의 인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한 자료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한국근현대인물자료」[5]와 「직원록자료」[6]를 들 수 있다.

「한국근현대인물자료」는 『在朝鮮內地人 紳士名鑑(1917)』 등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여러 인명록에 나오는 인물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DB로 각 인물에 대한 생년, 출신, 학력, 경력 등을 간략히 제공하고 있다(도 3). 「직원록」 자료는 대한제국과 조선총독부 직원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DB로, 1910~1943년까지의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원문 PDF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직원록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당시의 소속과 관직, 관등만을 확인할 수 있다(도 4).

이상의 자료들은 일제강점기의 인물에 대해 아주 개략적인 내용만을 제공하고 있어 참고자료로서 한계가 있다. 이에 참고되는 것이 일본 도쿄문화재연구소에서 제공하는 「物故者記事」이다.[7] 이것은 도쿄문화재연구소에서 간행한 『日本美術年鑑』에 수록된 총 3,073건에 대한 「物故者記事」를 망라한 것으로 근대기의 문화재 관련 인물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도 5).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근현대인물자료」와 「직원록자료」에 비해 학력과 경력 등 상세한 내용과 주요 연구 성과도 확인할 수 있는 등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5)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im
6)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w
7) https://www.tobunken.go.jp/materials/bukko

표 1. 일제강점기 건조물 보존 관련 법령 등(서효원 2018: 38, 표 2 필자 편집)

순번	법령(칙령, 제령, 부령, 훈령) 및 행정명령(통첩)	관보 호수	법령 고시일 (관보 발행일)	법령 구분	법령 호수	관련
1	향교재산관리규정		1910.04.28	학부령	2	재산
2	사찰 보물 목록첩 조제의 건	135	1911.02.14	관통첩	6	보존
3	사찰령	227	1911.06.03	제령	7	재산
4	사찰령시행규칙	257	1911.07.08	부령	84	재산
5	조선관유재산관리규칙	270	1911.07.24	칙령	200	재산
6	관유재산보존 및 취훼取毁에 관한 건	344	1911.10.19	관통첩	297	보존
7	고비, 고탑, 석불, 기타 석재에 조각된 건설물 보존방 체체에 관한 건	377	1911.11.29	관통첩	359	보존
8	사찰전당등 건축에 관한 건	489	1914.03.09	관통첩	99	보존
9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회계사무장정	호외	1914.08.17	훈령	42	보존
10	조선사유寺有재산 관리에 관한 건	777	1915.03.09	관통첩	75	재산
11	고적조사위원회규정	1175	1916.07.04	훈령	29	보존
12	고적 및 유물에 관한 건	1175	1916.07.04	훈령	30	보존
13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	1175	1916.07.04	부령	52	보존
14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에 관한 건	1217	1916.08.22	관통첩	138	보존
15	사찰당우기타건조물의 자연재해(天災)에 의해 도괴된 손상재 처분방(법)	1641	1918.01.28	관통첩	15	보존
16	향교재산관리규칙	2365	1920.06.29	부령	91	재산
17	사찰령 개정	730	1929.06.10	제령	9	재산
18	사찰령시행규칙 개정	730	1929.06.10	부령	52	재산
19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호외	1933.08.09	제령	6	보존
20	조선총독부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관제	1978	1933.08.12	칙령	224	보존
21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시행규칙	2072	1933.12.05	부령	136	보존
22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시행수속	2072	1933.12.05	훈령	12	보존
23	조선총독부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의사규칙	2072	1933.12.05	훈령	43	보존
24	국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처분에 관한 건	2105	1934.01.19	관통첩	2	보존
25	국유재산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건	2881	1936.08.19	칙령	266	재산
26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3059	1937.03.29	부령	26	재산
27	조선총독부소관 국유재산 취급규정	3059	1937.03.29	훈령	9	재산

이름	藤田亮策 (藤田亮策)	
민족구분	일본인	
성년월일	1) 1892-08-99	
	출전	1) 인사흥신,401쪽
나이	1) 43세(1935년 현재)	
	출전	1) 인사흥신,401쪽
출신지	1) 新石縣 古志郡 上北谷村(원적)	
	출전	1) 인사흥신,401쪽
현주소	1) 경성부 동숭동 201	
	출전	1) 인사흥신,401쪽
가족관계 배우자	1) 藤田智惠(1896년 4월생)	
	출전	1) 인사흥신,401쪽
학력	1) 1918년 동경제대 문과대학 사학과를 졸업	
	출전	1) 인사흥신,401쪽
경력및활동	1) 1920년 6월 宮內省諸陵寮屬이 되었고, 동년 11월 掌典補를 겸했다. 1923년 6월 총독부 鑑査官이 되어 조선으로 와서 1924년 12월 총독부편수관, 1925년 6월 동 수사관을 거쳐 1926년 6월 경성제국대학 조교수에 취임했다. 이어서 교수겸 총독부박물관장이 되어 1935년에 이른다.	
	출전	1) 인사흥신,401쪽
참고문헌	조선인사흥신록	

도 3.「한국근현대인물자료」DB 중 藤田亮策 검색 화면

검색결과 923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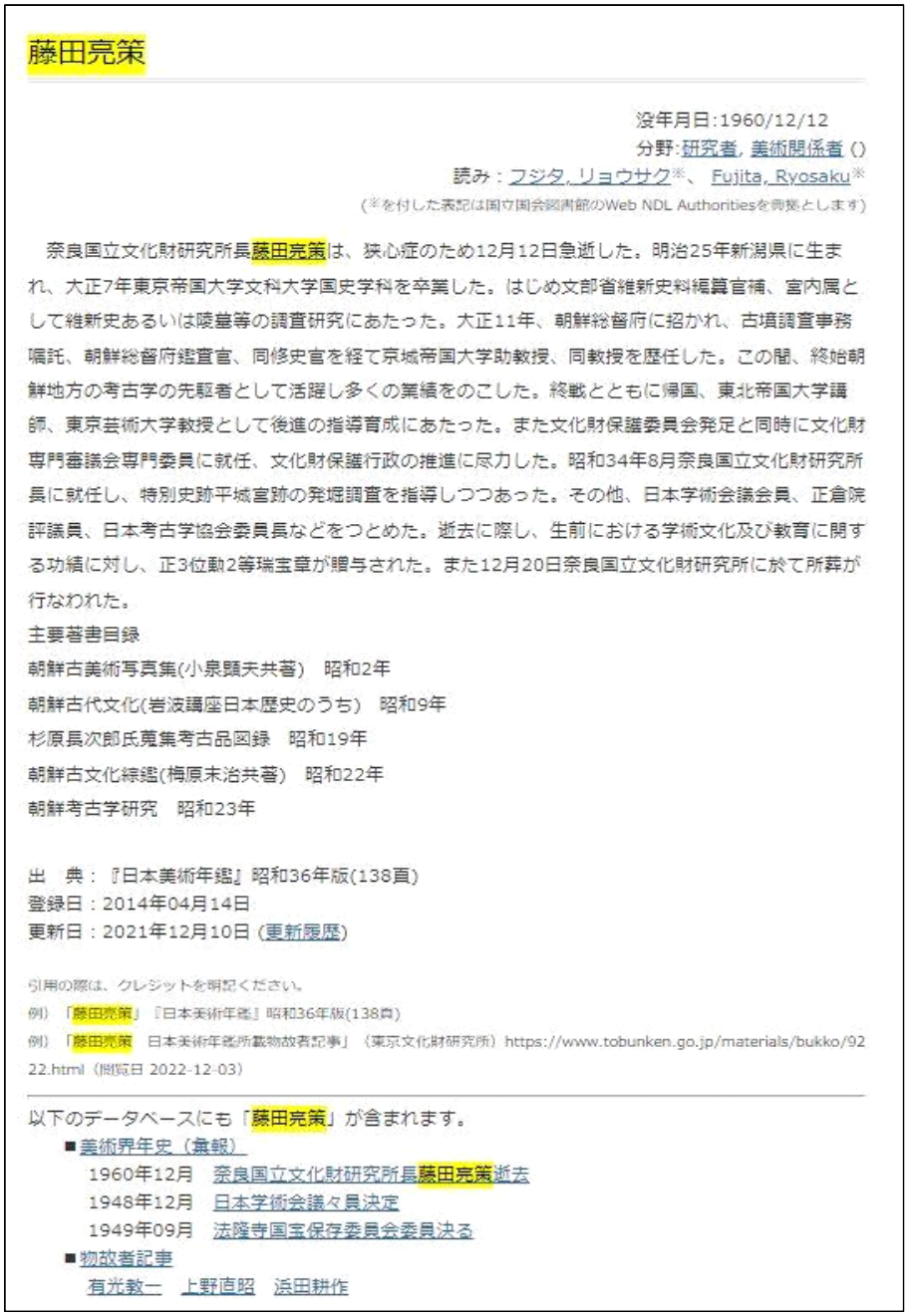
직원록자료

검색어 : 藤田亮策 건수 : 70

결과내검색

번호	조사시기	이름	소속	관직	관등	공훈	비고	원문이미지
1	1923	藤田亮策	조선총독부>학무국>고적조사과	囑託	(연2760)		古蹟調査課事務囑託	원문이미지
2	1924	藤田亮策	조선총독부>학무국>고적조사과	鑑査官	7등6급	종7		원문이미지
3	1924	藤田亮策	조선총독부직속기관>박물관협의원				總督府鑑査官	원문이미지
4	1925	藤田亮策	조선총독부>학무국>편집과	編修官	7등6급	종7		원문이미지
5	1926	藤田亮策	조선총독부직속기관>조선사편수회	修史官	6등8급	정7		원문이미지
6	1926	藤田亮策	조선총독부직속기관>고적조사위원	委員			修史官	원문이미지
7	1927	藤田亮策	조선총독부직속기관>경성제국대학>법문학부	助敎授	6등8급	정7	(在外硏究中)	원문이미지
8	1927	藤田亮策	조선총독부직속기관>고적조사위원회	委員				원문이미지
9	1927	藤田亮策	조선총독부직속기관>박물관협의원					원문이미지
10	1928	藤田亮策	조선총독부직속기관>경성제국대학>법문학부	助敎授	5등7급	정7		원문이미지
11	1928	藤田亮策	조선총독부직속기관>박물관협의원				京城帝國大學敎授	원문이미지
12	1928	藤田亮策	조선총독부직속기관>고적조사위원	委員			京城帝國大學敎授	원문이미지

도 4.「직원록자료」DB 중 藤田亮策 검색 화면



藤田亮策

没年月日:1960/12/12
分野:研究者, 美術関係者 ()
読み：フジタ, リョウサク※、 Fujita, Ryosaku※
(※を付した表記は国立国会図書館のWeb NDL Authoritiesを典拠とします)

奈良国立文化財研究所長藤田亮策は、狭心症のため12月12日急逝した。明治25年新潟県に生まれ、大正7年東京帝国大学文科大学国史学科を卒業した。はじめ文部省維新史料編纂官補、宮内属として維新史あるいは陵墓等の調査研究にあたった。大正11年、朝鮮総督府に招かれ、古墳調査事務嘱託、朝鮮総督府鑑査官、同修史官を経て京城帝国大学助教授、同教授を歴任した。この間、終始朝鮮地方の考古学の先駆者として活躍し多くの業績をのこした。終戦とともに帰国、東北帝国大学講師、東京芸術大学教授として後進の指導育成にあたった。また文化財保護委員会発足と同時に文化財専門審議会専門委員に就任、文化財保護行政の推進に尽力した。昭和34年8月奈良国立文化財研究所長に就任し、特別史跡平城宮跡の発掘調査を指導しつつあった。その他、日本学術会議会員、正倉院評議員、日本考古学協会委員長などをつとめた。逝去に際し、生前における学術文化及び教育に関する功績に対し、正3位勲2等瑞宝章が贈与された。また12月20日奈良国立文化財研究所に於て所葬が行なわれた。

主要著書目録
朝鮮古美術写真集(小泉顯夫共著)　昭和2年
朝鮮古代文化(岩波講座日本歴史のうち)　昭和9年
杉原長次郎氏蒐集考古品図録　昭和19年
朝鮮古文化綜鑑(梅原末治共著)　昭和22年
朝鮮考古学研究　昭和23年

出　典：『日本美術年鑑』昭和36年版(138頁)
登録日：2014年04月14日
更新日：2021年12月10日 (更新履歴)

引用の際は、クレジットを明記ください。
例）「藤田亮策」『日本美術年鑑』昭和36年版(138頁)
例）「藤田亮策　日本美術年鑑所載物故者記事」（東京文化財研究所）https://www.tobunken.go.jp/materials/bukko/9222.html（閲覧日 2022-12-03）

以下のデータベースにも「藤田亮策」が含まれます。
■美術界年史（彙報）
1960年12月　奈良国立文化財研究所長藤田亮策逝去
1948年12月　日本学術会議々員決定
1949年09月　法隆寺国宝保存委員会委員決る
■物故者記事
有光教一　上野直昭　浜田耕作

도 5. 東京文化財研究所의「物故者記事」DB 중 藤田亮策 검색 화면

이상에서 언급한 자료의 해제, 번역, 참고 자료 등은 지금까지 대부분 개인 연구자가 담당하였던 부분이다. 그러나 개인 연구라는 특성상 연구의 주제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으며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하기도 어렵다. 또한 많은 경우 논문의 참고 자료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연구 성과의 확산에도 명확한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작업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담당하여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괄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자료 활용 분야의 확장 – 국립문화재연구원과의 협업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일제강점기 자료는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이 담당한 업무 전반에 걸친 것으로, 고고학과 미술사 외에 매우 많은 양의 고건축 수리 보존, 고적 및 보물 지정 등의 업무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당시 박물관의 업무는 '1) 박물관 경영, 2) 매장문화재의 처리, 3) 고적 및 고건축의 수리보존, 4)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지정 등(有光敎一 2007: 34)'이었으나 현재 이 업무는 박물관과 문화재청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렇기에 현재 국립박물관의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 사업은 고고학과 미술사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물론 1960년대의 석굴암 수리공사 보고서(문화재관리국 1967)에도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가 게재되는 등 일찍부터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에 대한 관심은 있었으며, 최근에도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보수 정비 사업과 관련해 일제강점기의 조사 사진, 실측도, 수리 공사 설계도 등이 소개되기도 하였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또한 일제강점기 고건축의 수리 복원에 대한 논문(서효원 2018 등)이 점차 늘고 있기는 하지만 고고학, 미술사 분야와 같은 본격적인 정리는 찾기 어렵다. 현재 공개되고 있는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에는 '지정'과 '보존'으로 많은 양의 문서가 있으며,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은 '고고' 13,828건, '미술' 6,597건, '건축' 10,420건, '문자자료' 2,124건, '인류・민속' 2,782건, '기타' 2,419건으로, '고고' 다음으로 '건축'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41집까지 발간된 "일제강점기 자료조사 보고"와 12집까지 발간된 "국립박물관 소장 유리건판"은 대부분 고고학과 미술사 분야의 것으로, 고건축의 수리 보존에 관련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일제강점기 자료조사 보고"의 경우, 당시 발굴 조사와 관련된 문서 및 유물 정리, 재발굴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일제강점기의 고건축수리와 관련된 정리가 없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다.

고건축의 수리복원에 관련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공식적으로 간행된 『古蹟調査報告』가 일찍부터 알려져 기초적 연구가 가능했던 것에 비해, 고건축은 1933년의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祈念物保存令'부터 고적에 포함되고, 수리

복원 사업의 결과가 정식 보고서로 발간된 사례가 매우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선총독부박물관이 담당한 업무가 현재는 국립박물관과 문화재청으로 양분되어 있다는 행정적인 한계와 더불어 또한 박물관에 고건축 관련 전공자가 없다는 점 역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자료 소장 기관과 현재 업무 담당 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자료의 정리가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 외부인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국립문화재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고고학, 미술사 이외 분야에 대한 자료 정리 및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은 분명하다.

4. 일제강점기 고적 사업 연구 중심으로서의 국립중앙박물관 - 국내외 기관과의 협업

현재 국립박물관이 실시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 사업'의 내용은 문서와 유리건판의 온라인 공개, 재발굴을 포함해 기초 자료를 활용한 조사보고서와 유리건판 자료집의 발간이며, 이를 통해 매우 많은 학술적 성과가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지금까지의 사업은 모두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와 국립박물관의 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자료 공개와 박물관 내의 학술 활동을 기초로 일제강점기 고적 사업의 연구 중심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공문서, 유리건판을 비롯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 또는 고적 사업 관련 자료는 국가기록원, 서울대학교 박물관(서울대학교 2008) 및 도서관, 성균관대학교 박물관(2006, 2012) 등의 국내기관 뿐 아니라 국외의 다양한 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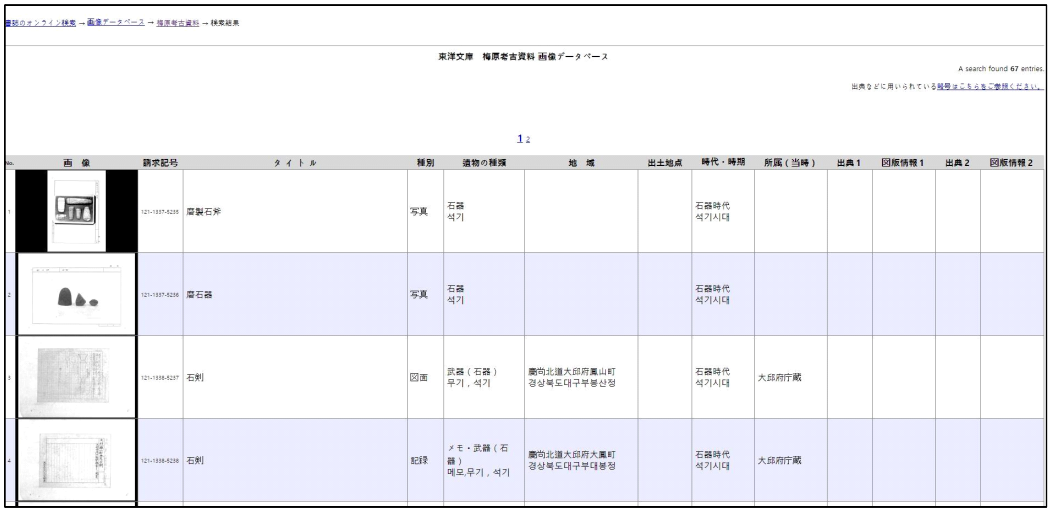
잘 알려져 있는 도요(東洋)문고의 「梅原考古寫眞資料庫 朝鮮之部(도 6)」,[8] 「東京大學總合研究博物館小石川分館藏 關野貞コレクション(도 7)」,[9] 京都大學, 「國立公文書デジタルアーカイヴ(도 8)」[10] 등 여러 기관에 관련 자료가 소장되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이미 온라인으로 공개되고 있다.

---

8) http://124.33.215.236/umehara2008/ume_query.html

9) http://umdb.um.u-tokyo.ac.jp/DAnnex/sekino_collection/home.php 関野貞コレクションは 동경제국대학 공과대학에 소장되었던 것, 세키노의 장남 関野克教授가 근무했던 東京帝国大学 第二工学部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탁본, 사진. 필드카드, 기타의 4 종류로 구분되어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東京大学総合研究博物館小石川分館에서는 조선총독부 기사를 거쳐 東京大学 建築学科 교원으로 근무했던 후지시마 카이지로(藤島亥治郎)의 자료도 정리 중으로 곧 공개할 예정으로 있다.

10) https://www.digital.archives.go.jp/



蔵書のオンライン検索 → 画像データベース → 梅原考古資料 → 検索結果

東洋文庫　梅原考古資料 画像データベース

A search found 67 entries.

出典などに用いられている略号はこちらをご参照ください。

1 2

No.	画　像	請求記号	タイトル	種別	遺物の種類	地　域	出土地点	時代・時期	所蔵（当時）	出典1	図版情報1	出典2	図版情報2
1		121-1337-5285	磨製石斧	写真	石器 석기			石器時代 석기시대					
2		121-1337-5286	磨石器	写真	石器 석기			石器時代 석기시대					
3		121-1338-5287	石剣	図面	武器（石器） 무기，석기	慶尙北道大邱府黑山町 경상북도대구부흑산정		石器時代 석기시대	大邱府庁蔵				
4		121-1338-5288	石剣	記録	メモ・武器（石器） 메모,무기，석기	慶尙北道大邱府大黑町 경상북도대구부대흑정		石器時代 석기시대	大邱府庁蔵				

도 6.「梅原考古寫眞資料庫 朝鮮之部」DB 중 石器時代 검색 화면

All List

検索 →

ソート → 項目クリック(昇順／降順)　　画像拡大 → 画像クリック　　first | prev. | 1 – 100 of 5679 | next | last

箱番号	紙番号	資料名	年月日	ｸﾞﾙｰﾌﾟ名	箱表書	国	種類	備考	画像
01	001	[目次] 一、咸南		咸南	平壤	北朝鮮	カード		
01	002	永興邑城聖歴山城	大正2.11.18	咸南	平壤	北朝鮮	カード		
01	003	元山望德山城	大正2.11.21	咸南	平壤	北朝鮮	カード		
01	004	元山望德山城[地形図]	大正2.11.21	咸南	平壤	北朝鮮	カード	裏面あり	
01	005	元山府鹿銅炮(乙)	大正2.11.22	咸南	平壤	北朝鮮	カード		
01	006	安邊	大正2.11.23	咸南	平壤	北朝鮮	カード		

도 7.「東京大學總合研究博物館小石川分館藏 關野貞コレクション」중 필드카드

도 8.「國立公文書デジタルアーカイヴ」에서 '古跡 朝鮮' 검색 화면

또한 우리와 같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고적조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만에서도 앞에서 살펴본 國史館臺灣文獻館 외에 국립대만대학 인류학과와 인류학박물관 등에서 고적조사 관련 자료를 소장, 일부를 공개하고 있다(도 9).[11]

도 9. 臺灣大學 DB 중 이노우 카노리(伊能嘉矩) 원고

11) http://www.darc.ntu.edu.tw/newdarc/index.jsp

물론 조선총독부박물관 자료라고 해도 타 기관의 소장 자료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자료의 접근 및 활용에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 연구자와 달리, 일제강점기 고적 사업 관련 타 기관 소장 자료의 현황 파악과 특별전 및 학술대회, 연구총서 발간 등 타 기관 소장 자료의 활용 사업은 오로지 국립박물관만이 가능하며 국립박물관이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다.

2010년대 이후 일제강점기 고적 사업과 관련된 연구가 점차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고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훨씬 더 많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일본, 대만, 중국 등 일본 제국주의 시기에 유사한 고적 사업이 실시된 나라들과의 공동 연구 역시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일제강점기 고적 사업에 대한 연구는 조선총독부박물관 업무와 관련된 내용 외에 근대사, 문화재환수 등 여러 분야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지금까지의 공개 사업을 넘어 국립중앙박물관이 전담 부서와 전담 인력을 갖추고 일제강점기 고적 사업 연구를 주도하는 연구 중심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향후의 사업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Ⅳ. 마치며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랜 기간의 지난한 노력으로 방대한 양의 일제강점기 자료를 정리, 공개하고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일제강점기 고적 조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로서 감사할 뿐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업이 지금까지는 자료의 공개에 집중되었다면 앞으로는 공개된 자료에 대해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과 일제강점기 또는 근대기 고적 사업 연구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향후 사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 문서와 유리 건판의 통시적이고 망라적인 자료 정리를 통한 일제강점기 고적 사업의 전체상 파악
- ○ 북한 지역 고적조사 사업의 정리
- ○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의 해제, 번역 및 참고 자료 제공
- ○ 국립문화재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한 ‘고적 및 고건축 수리 복원’ 분야의 정리 및 연구
- ○ 국외 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근대기 고적 사업 연구 중심을 지향

일제강점기 고적 사업에 대한 연구는 비단 고고학, 미술사, 건축사의 학사적 연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근대사, 문화재 환수 등 다양한 방면에 주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이 그러한 연구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립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제1집~제12집.
『日帝强占期 調査資料 報告』 제1집~제41집.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8, 『가야자료 총서 2, 가야 일제강점기 자료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1, 『경주 금관총 발굴조사보고서:國譯』.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익산 미륵사지 석탑 639년에서 2019년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한국고고학회, 2019, 『분단 70년 북한 고고학의 현주소』.
권혁산, 202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자료의 공개와 정리」, 『미술사연구』 40.
김도형, 2001, 「일제하 총독부박물관 문서와 관리 체계」, 『기록학연구』 3.
문화재관리국, 1967, 『石窟庵修理工事報告書』.
배성준, 2003, 「조선총독부 공문서 분류 체계의 복원을 위한 시론」,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워크숍 발표문』.
백제세계유산센터, 2018, 『백제역사유적지구 일제강점기 기록모음집』.
서울대학교, 2008,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식민지시기 유리건판』.
서효원, 2018, 「일제강점기 보물 건조물 수리공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2006, 『집안 고구려 유적의 어제와 오늘』.
_____, 2012, 『유리원판에 비친 한국의 문화유산 식민지 조선의 고적조사』.
오영찬, 2019,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의 분류 체계에 대한 시론」, 『미술자료』 96.
이경용, 2021, 「일제의 공문서 폐기 시론 :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 기록의 잔존성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7.
이기성, 2010, 「일제강점기 '石器時代'의 조사와 인식」, 『선사와 고대』 33.
중부고고학회, 2015, 『북한고고학의 패러다임과 논리: 서북한 선사시대 연구』 중부고고학회 2015년 정기학술대회.
한국고고학회, 2016, 『통일고고학을 위한 연구현황과 과제 진단』.
_____, 2017, 『고고학으로 본 고조선』 제4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_____, 2018, 『북한 문화유산 공동조사 방안』 한국고고학회 통일고고학특별위원회 학술회의.

有光敎一, 2007, 『朝鮮考古学七十五年』.

[관련 사이트]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기록물
https://theme.archives.go.kr/next/government/viewMain.do (2022.11.19.)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https://www.museum.go.kr/modern-history/main.do (2022.11.19.)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https://www.museum.go.kr/dryplate/main.do (2022.11.1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현대인물자료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im (2022.11.19.)
국사편찬위원회 직원록자료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w (2022.11.19.)
학술연구정보서비스 www.riss.kr (2022.11.19.)

国立公文書デジタルアーカイヴ https://www.digital.archives.go.jp/ (2022.11.19.)
東京大学総合研究博物館小石川分館藏 関野貞コレクション
http://umdb.um.u-tokyo.ac.jp/DAnnex/sekino_collection/home.php (2022.11.19.)
東京文化財研究所 https://www.tobunken.go.jp/ (2022.11.19.)
東洋文庫 梅原考古写真資料庫 朝鮮之部
http://124.33.215.236/umehara2008/ume_query.html (2022.11.19.)
國史館臺灣文獻館 https://onlinearchives.th.gov.tw (2022.11.19.)
臺灣大學 http://www.darc.ntu.edu.tw/newdarc/index.jsp (2022.11.19.)

【Abstract】

Recommendations for Future Projects on the Public Availability of Materials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Yi Kisung*

The National Museum of Korea's various projects related to the arrangement and release of a vast amount of materials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rough its long-term strenuous efforts are very significan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s projects have been focused on the disclosure of materials thus far, whereas its future projects should place an emphasis on making its disclosed materials more easily accessible for more researchers and moving toward the research of historical remains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or modern times. In this paper, the present status of release and utiliza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s materials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outlined from a perspective outside the museum, and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were provided for the future directions of the museum's projects.

- ○ Understanding an overall picture of the museum's projects on historical remains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rough the diachronic and comprehensive arrangement of documents and glass plates
- ○ Summarization of projects on the investigation of historical remains in North Korea
- ○ Release and translation of documents from the Museum of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and the provision of reference data
- ○ Arrangement and research of materials in the field of 'repair and restoration of historic remains and ancient buildings' in collaboration with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 Pursuit of its focus on projects for historical remains in the modern era of East Asia through joint research with overseas institutions

The research of projects on historical remains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s not limited to academic studies in archaeology, art history, and architectural history. It can provide major materials in a range of fields spanning modern history and the return of cultural assets, and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should be positioned at the center of this research.

Key words : National Museum of Korea, Japanese Colonial Period, Japanese Government-General Museum, documents, Gelatin dry plate

---

* Professor, Dept. of Archaeolog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